



맥스 러스차일드 박사와 함께

지난 4월 9일~21일까지 미국물사료 협회의 초청으로 내한하여 본회와 종축개발협회, 제일농장, 제일종축, 축산시험장, 종돈능력검정소, 국립종축원, 육가공장등을 둘러보고 종돈선발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바 있는 맥스 러스차일드박사는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축산대학의 육종학교수로 본지가 미사료곡물협회의 도움으로 대담을 마련하였다. — 편집자주 —

— 한국의 양돈장과 종돈장을 시찰하고
느낀 소감은 —

— 한국의 양돈산업은 현대화과정에 있으며 특히 기업양돈장의 시설은 양호하며 육종관리면에 있어서는 미국수준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느껴진다. 그러나 소규모 부업양돈은 번식·육종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느껴졌다.

— 육종학자로서 종돈선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—

— 듀록·햄프셔종에 있어서는 사료효율, 성장율, 정육량을 중점선발하여야 하고, 렌드레 이스, 요크셔종에 있어서는 우수한 어미돼지로 부터 육성율이 좋은 것에 중점을 두어 선발하여야 한다.

또 교잡의 경우 우수한 어미돼지로부터 생산된 것끼리 교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.

— 능력검정이 종돈개량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—

— 능력검정방법에는 두 부분이 있다. 자가검정과 중앙검정소검정이 그것이다. 자가검정은 자기축군에서 어떤 계통이 우수한가를 선발하는 것이고, 중앙검정은 전체 농장가운데 어떤 축군이 가장 좋은가를 비교하여 그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는 것이다.

— 한국양돈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—

— 미국 NPPC의 체크오프(Check-off)와 같은 기금을 조성하여 돈육판매촉진사업, 검정사업, 연구사업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양돈협회는 돼지파동이 없도록 가격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고 전체 양돈기술 수준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될것입니다.